

한국노어노문학회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한국노어노문학회 소식지

2021년 2월 제84호



발행처 : 한국노어노문학회

발행인 : 최행규

편집인 : 한국노어노문학회 총무부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외국어대학 233호

전 화 : 031-201-3252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235-173062 / 예금주: 차지원

Homepage : www.karll.or.kr

이메일 : karll21@hanmail.net

차례

권두언	3
회원논단	5
신간안내	7
학회지 발간 안내	9
학회지 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	10
회비납부 현황	17

권두언

두 번의 신년사, 그리고 친구를 기억하며



윤영순(경북대학교)

유학 시절 같은 기숙사에 살았던 러시아 친구가 2020년 2월 한국을 찾았다. 그 친구와 나는 20년 전 겨울, 모스크바의 대학 기숙사에서 처음 만났다. 값싼 샴페인을 마시고 굴을 까먹으며 맞이하는 러시아식(정확히는 소비에트 식이겠다) 새해를 처음으로 경험한 것도 그 친구 덕분이었다. 좁은 기숙사 방에서 낡은 텔레비전으로 안정된 국가건설에 관한 젊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진짜 대통령으로서 신년사를 또박또박 말하던 결기에 찬 푸틴을 보면서 친구는 21세기의 러시아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구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그만 두겠다고 했다. 지도교수와 사이도 안 좋고, 무엇보다 '전망이 없다'라는 이유였다. 학위를 따고 자리를 잡아도 방 한 칸 마련하기도,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부양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며칠에 걸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때려치운' 친구는 신발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다. 정해진 월급 없이 판매수당만 있다 보니, 번덕스러운 손님들의 시중을 들며 하루 열두 시간 넘게 일했던 친구의 발은 늘 퉁퉁 부어 있었다.

하루아침에 루블이 휴짓조각이 되었던 1990년대 중반의 기억 때문인지 친구는 일

정한 액수의 돈을 모으면 외화로 환전해서 집안 곳곳에 숨겨뒀다. 2000년대 초반 푸틴의 러시아는 차츰 시스템을 갖춰 갔지만 보통 사람들의 삶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월세도 몇 배로 올랐고, 모스크바는 전 세계에서 주거비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학업 중단 후 기숙사를 떠난 그 친구는 낯선 사람 여럿과 아파트 하나를 빌려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그랬던 친구가 자기 집을 마련했다고 연락을 해온 것은 3년쯤 전이었다. '비록 변두리 흐루쇼프카에 불과하지만'이란 말을 덧붙이며 친구는 웃었다. 축하해주면서 코끝이 찡해졌다.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세월 친구가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부를 계속했더라면 명석했던 그 친구는 아마도 좋은 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대신 친구가 청춘을 다 바쳐서 얻은 것은 방 두 개짜리 낡은 아파트. 무엇이 더 의미 있는 것인지 선불리 말하기는 쉽지 않다.

몇 번이고 한국으로 초대했지만 내내 거절하던 그녀는 작년 이맘때 일주일 휴가를 내고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친구와 나는 대구에서 서울, 그리고 부산과 강원도까지 전국 곳곳을 여행했다. 국내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할 때였다. 하지만 거리가 다소 한산할 뿐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해외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던 그 친구는 한국이 이렇게 가깝고도 아름다운 줄 몰랐노라고, 연말이 되면 휴가를 더 길게 낼 수 있으니 다시 오겠다고, 제주도에서 새해를 맞이하자고 약속한 후 러시아로 돌아갔다.

친구가 귀국하고 나서 이틀 후, 거짓말처럼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가 쏟아졌다. 친구가 있는 동안 일이 터지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당시 러시아 언론에서 아주 심각하게 보도해서인지 친구는 오히려 나를 걱정했다. 바로 그날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 무엇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측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아니라 컴퓨터와 카메라를 바라보며 강의를 하고, 화면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회의를 했다. 러시아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갔던 학생들은 며칠씩 걸려서 지구 반 바퀴를 넘게 돌아 귀국했다. 절대로 익숙해질 것 같지 않은 새로운 생활이 차츰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수십 년 동안 자연스럽게 누리던 것들이 오히려 낯설게 되었다.

함께 새해를 맞이하자고 약속했던 그 친구에게서 2021년 새해 전야에 연락이 왔다. 축하 인사를 전한 친구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 중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지하철에서 걸린 것인지, 고향을 다녀오던 버스에서 감염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놀란 나와 달리 친구는 오히려 태평했다. 환자가 많아서 병원에서 치료받기는 어렵고 나올 때까지 집에서 격리 중이라 평생 처음으로 꼭 설 수 있어서 좋단다.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모를 때의 공포와는 달리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다고, 자기 집이 없었으면 격리도 못 할 뻔했다면서 웃는다. 이렇게 오가기 힘든 세월이 올 줄 몰랐다면, 그래도 그 전에 한국에 다녀온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에 왔을 때 이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20년 전, 기숙사에서 꿈꾸었던 미래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자기 세대는 비교적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노력하면 자기 집을 가질 수도 있고,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조부모나 부모 세대가 겪었던 전쟁이나 국가 폭력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란 다. 친구가 일상을 영위하는 시공간과 나의 그것은 다르니 복잡하게 논쟁할 필요는 없다. 전화를 끊고 유튜브에서 2021년 푸틴의 신년사를 들었다. 20년 전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외모와 여전히 단호한 어투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엔 원색적인 비난의 댓글이 가득했다.

어쨌든 길었던 2020년은 지나가고 또 다른 한해가 시작되었다. 물리적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는 과거 인류가 겪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와 싸우고 대처하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다. 바라건대 2021년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기를, 격동의 시대를 견디면서 가꾸어낸 개인의 사소한 삶이 더는 파괴되지 않기를, 일상을 되찾고 오랜 친구와 담소할 수 있는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최정현 (고려대학교)

학회 소식지에 뭔가 써 달라는 요청을 받은 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학회 소식지에 실릴만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접할 수가 없었다. 결국, 마감에 쫓겨 쓰고 있는 이 글 또한 그리 유쾌하고 즐거울 수는 없는 소식일 뿐이라 글쓴이의 마음 또한 덩달아 무겁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은 모두가 다 힘이 들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개강을 준비하는 학교도 마음이 가볍지는 않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학을 입학한다고 해도 여전히 수업은 온라인 강의이지만, 그래도 대학은 입학하겠다고 해마다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글쓴이의 첫 조카도 작년 입시를 치렀다. 기대(라 쓰고 '욕심'이라 읽어야겠지만)만큼 만족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 군데 학교에 합격은 했었다. 집이 부산이라 부산대 인문계열 한 곳과 서울의 사립대 한 곳에 붙자, 그래도 삼촌이고 대학에 있다는 핑계로 어디가 나올지 하는 답 없는 질문을 여동생도 조카도 한참이나 던졌다. 조카의 서울 진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산에서 나고 여즉 자랐는데, 부산에서 제일 좋다는 국립대학을 갈 수만 있다면 안 갈 이유는 없지 않냐는 궁색한 논리로 지방 국립대를 (강하게) 권했다. 삼촌에 대한 절반의 믿음이나마 작용했는지, 합격한 서울의 사립대가 그리 마음에 안 들었는지

쿠오 바디스, ...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결국 조카는 부산의 국립대학을 선택했다.

글쓴이의 아주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다. 그 친구도 조카가 이번에 입시를 치렀는데, 삼수생이라고 하며 올해는 꼭 어디든 붙어야 된다고 했다. 로스쿨을 가고는 싶은데, 문과대학을 입학(이라 쓰고 '경유'라 읽어야겠지만)하면 자교 로스쿨을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문과대학 중 어느 과가 그래도 (입학이) 수월할지 많이 미안해 하며 물어왔다. 하나도 미안해 할 일이 아니라며, 글쓴이는 그동안 그 친구에게 받은 많은 도움에 빚갚음을 할 수 있는 더없는 기회다 싶어 아주 성심껏 조언을 건넸다. 하지만 아마 결과는 그리 좋지 않은지, 연락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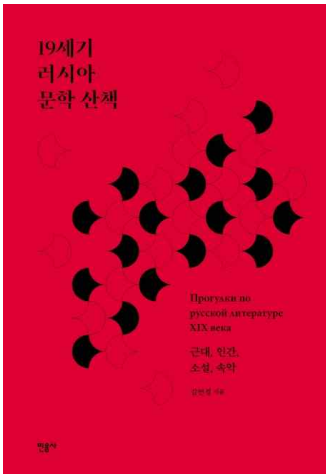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미래 직업과 진로에 대한 선택도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당장 양적으로만 봐도 올해 이미 전국 각 대학은 입학생 정원을 매우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고등학교 졸업 인원이 대학 입학 정원보다 65,000명이나 모자란다고 하며 심지어 2023년, 불과 2년 뒤에는 약 492,000명의 대학 입학 정원 대비 물경 20%나 모자라는 인원인 398,000명 정도만이 대학 입학 학령 인구로 남을 예정이라고 한다.

매우 피상적인 예들이지만, 우리 모두 처한 곳마다 제각각의 어려움에 접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개별 대학의 해결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문제로 개인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이브하기 그지없는 인문학을 전공했다는 우리들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결국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결국 남는다. 수업 충실하고 좋은 연구하고 주변의 동료, 선후배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찮은(!) 일 말이다.

넷플릭스라는 신문명에 접하고도 그 옛날의 영화 『쿠오 바디스』를 연말에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다. 스물 몇살 때 여주인공 데보라 카의 미모에만 빠져서 보던 영화와는 이제는 많이 달라 보였다.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 적어도 대학교육은 코로나도 겹친 상태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일까? 참으로 무용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누구의 잘못(문제)이고’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이미 백 수십 년 전부터 묻고 있었던, 늘 그 본질에 가닿으려 했던 러시아 정신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도 않을까 싶다. 다시 한번, 자문하자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또는 어디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어디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인가로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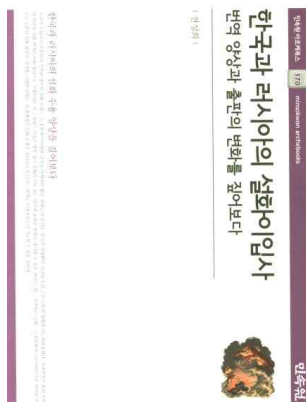


19세기 러시아 문학 산책

김연경 (지은이)

민음사

2020년 8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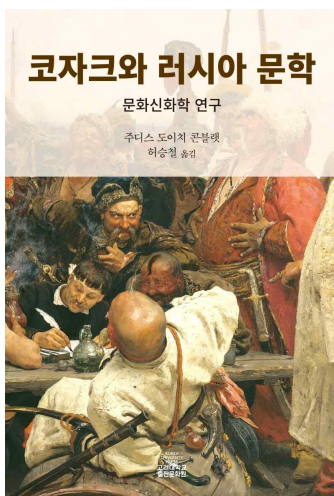


한국과 러시아의 설화 이입사

전성희 (지은이)

문속원

2020년 8월 31일



코자크와 러시아 문학

주디스 도이치 콘블렛 (지은이)

허승철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11월 30일

크림반도 견문록 1

Очерки Крыма

예브게니 마르코프 지음 | 허승철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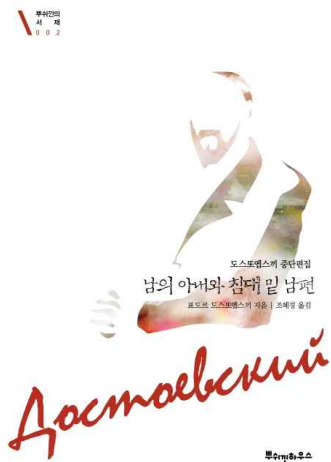
크림반도 견문록 1, 2

예브게니 마르코프 (지은이)

허승철 (옮긴이)

나남

2020년 1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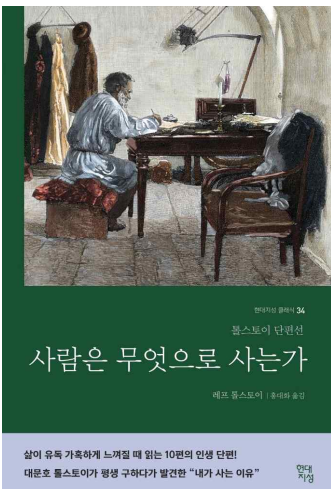
남의 아내와 침대 밑 남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은이)

조혜경 (옮긴이)

부쉬깁하우스

2020년 12월 30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레프 톨스토이 (지은이)

홍대화 (옮긴이)

현대지성

2021년 2월 5일

학회지 발간안내

- 학회지 『노어노문학』은 연 4회 발행됩니다. 각권 제1호는 3월 30일, 제2호는 6월 30일, 제3호는 9월 30일, 제4호는 12월 30일에 발행됩니다. 논문 투고 마감일은 각권 제1호는 2월 20일, 제2호는 5월 20일, 제3호는 8월 20일, 제4호는 11월 20일입니다.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를 통한 논문 투고는 의무사항입니다.
- 논문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들께서는 JAMS에 회원 가입을 하여 논문을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연회비 및 심사료를 학회 계좌(소식지 표지 참조)에 입금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평생회비는 50만원, 연회비는 5만원이며,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들께서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논문을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료는 3만원입니다.
- 논문게재료는 전임교원 회원의 경우 연구비를 지원 받았으면 30만원, 그렇지 않으면 20만원, 비전임교원 회원의 경우 연구비를 지원 받았으면 10만원, 그렇지 않으면 5만원입니다. 논문게재료는 심사결과 게재 확정 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비전임의 기준은 지속적 급여 수령과 퇴직금 유무인데, 모호할 경우 학회 총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예) 비정년트랙 교수, HK교수 및 HK연구교수는 전임으로, 연구재단 지원 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원 등은 비전임으로 구분됩니다.

학회지 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

한국노어노문학회는 노어·노문학을 비롯한 슬라브어문학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학회지 『노어노문학』을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0일, 연 4회 발행한다. 이를 위한 논문 투고요령과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논문투고요령

1. 분야: 노어학, 노문학, 슬라브어학, 슬라브문학, 노어교육학, 러시아 및 슬라브권 문학
2. 종류: 상기 분야의 연구 논문 및 서평
3. 분량: 최대 A4 28매 (참고문헌 포함). 초과 시, 장당 2만원 추가 게재료
4. 사용언어: 본문은 한글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요약문은 본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 논문투고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시오.

- 1)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700자 이내)과 맨 뒤에 본문과 다른 언어로 된 요약문 첨부
- 2) 주제어를 한글과 영어, 2개 언어로 작성하여 첨부
- 3)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4) 논문의 영문제목 및 투고자의 영문 이름표기

* 심사에 통과된 게재논문들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파일의 형태로 탑재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한글과 외국어 요약문, 한글과 영문 주제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논문을 투고할 때 한국연구재단 제출용으로 상기 요구사항들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작성요령

- 5.0. 논문제목: 아래에 필자명과 소속을 오른쪽으로 정렬한다. 단, 공동연구일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를 저자명 중 제일 앞에 배치함으로써 공동저자(연결저자 포함)와 구별함. 이때 제1저자에는 ‘*’를 붙인다.

5.1. 여백주기: 초기 화면대로

5.2. 문단모양: 초기 화면대로

5.3. 글자크기: 초기 화면대로

5.4. 글자간격: 초기 화면대로

5.5. 글꼴

- 윤명조 120체 (서체가 없을 시, 한컴바탕체로 제출 가능)

- 영어 및 러시아어 Palatino Linotype

- 모든 숫자 Palatino Linotype

5.6. 그 외 주요 사항

- 러시아 작품명 (단편): “ ” 표시

- 러시아 작품명 (중-장편): 『 』 표시

- 직접 인용 문장 (한글/러시아어/영어 모두) “ ” 표시

- 강조 (한글/러시아어/영어 모두) ‘ ’ 표시 (밑줄 혹은 짙은 색으로 강조하지 않음)

- 논문 제목: 모든 언어 자료에서 “ ” 표시

- 저널 및 신문: 모든 언어 자료에서 「 」 표시

- 논문 제목: 15 진하게 (고딕체)

- 챗터 제목: 13 진하게 I. II. III. IV. ... (고딕체)

- 챗터 제목: 서론, 결론 외 ‘들어가는 말’ 혹은 ‘나가는 말’ 등 다른 표현을 하지 않음

- 챗터 소제목: 12 진하게 II-1. II-2. III-1. III-2. ...

- 본문: 11

- 각주: 10

- 본문 내 인용문단: 11 (행간은 각주에서 동일하게 130%)

- 도표, 그림, 사진: 자료 바로 하단에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하되,

[도표-1] “러시아 2015년 문학의 해, 모스크바 행사 내용”

[그림-1] “Facebook 자료 캡처”

[사진-1] “톨스토이 생가 사진. 필자 직접 촬영” (2015.08.12.)

- 본문 내 인용 시, 앞뒤로 한 칸씩 띄움

5.7. 각주

[단행본] 저자 (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p. 쪽수.

1)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2001), p. 24.

2) 루이스 멍퍼드, 『기술과 문명』, 문종만 역 (서울: 책세상, 2013), p. 201.

- 3) David Dordwell, *The Cinema of Eisenstei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5).
- 4) В. К. Соколова, *Ответ. ред.,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фолькло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88).
- 5) Д. Николаев, *Сатира Гоголя*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4), сс. 3–4.
- 6) 김종대, *op cit.*, p. 29.
- 7) *Ibid.*, p. 87.
- 8) David Dordwell, *op cit.*, p. 39.
- 9) В. К. Соколова, *там же.* с. 98.
- 10) *Там же.* сс. 99–100.

[단행본의 한 챕터] 저자, “챕터명,” 편집자 명(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p. 쪽수.

- 1) 김학준, “소련 데탕트政策의 논리와 현실,” 김학준 편, 『現代소련의 解剖』 (서울: 한길사, 1981), p. 38.
- 2) Irina Reyfman, “Prose Fiction,” in Andrew Kah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shki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56–58.
- 3) D. N. Shalin (ed), *Russian Culture at Crossroad: Paradoxes of Postcommunist Consciousness*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 4) Л. Н. Виноградова и С. М. Толстая,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вещей: веник (метла) в славянских обрядах и верованиях,” //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Москва: РАН, 1993), сс. 56–57.
- 5) 김학준, *op cit.*, p. 209.
- 6) *Ibid.*, p. 208.
- 7) Irina Reyfman, *op cit.*, p. 78.
- 8) *Ibid.*
- 9) D. N. Shalin (ed), *op cit.*, p. 100.
- 10) Л. Н. Виноградова и С. М. Толстая, *там же.* с. 223.

[학술지논문]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 호 (년도), p. 쪽수.

- 1) 김우승, “러시아 정교의 상징성과 문화적 실재,” 『슬라브연구』, 제 13권 (1997), p. 25.
- 2) John Sullivan, “Dukhovnye stikhi among Twentieth-Century Old Believers: Song-books of the Kilin Family,”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5, No. 3 (July, 1997), pp. 56–58.

- 3) И. М. Денисова, “Этнос и культура. Зооморфная модель мира и её отголоски в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бзоры, но 3 (2003), сс. 56–57.

[그 외 문헌]

- 1)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중앙일보」, 2016년 1월 17일.
2)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421605> (검색일: 2016.01.17.).
3) “Российская неделя искусств откроется в субботу в ЦДХ,”
<http://ria.ru/culture/20160116/1360389606.html> (검색일: 2016.01.17.).
4) Stephen Kotkin, “The Resistible Rise of Vladimir Putin,”
<https://www.foreignaffairs.com/reviews/resistible-rise-vladimir-putin3> (검색일: 2016.01.17.).

5.8. 러시아 키릴문자의 영문자 표기: 권장하지는 않음

5.9. 참고문헌 목록 작성

각주를 지양하고 본문에(한노회, 1998: 116–117)로 표기할 경우나 각주로 한노회, 『한국노어노문학 30년 기념논문집』 (서울, 1998), pp. 116–117로 표기할 때나 공히 작성을 권장

6. 참고문헌 작성 요령: 순서는 국문, 논문, 영문 기타 외국어 순서

[단행본] 저자(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기재하지 않음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2001.

멈퍼드, 루이스. 『기술과 문명』. 문종만 역. 서울: 책세상, 2013.

Соколова, В. К. Ответ. ред.,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фолькло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88.

Николаев, Д. Сатира Гоголя.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4.

Dordwell, David. The Cinema of Eisenstei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5.

[단행본의 한 챕터] 저자. “챕터명.” 편집자(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김학준. “소련 데탕트政策의 논리와 현실.” 김학준 편. 『現代소련의 解剖』. 서울: 한길사, 1981.

Виноградова, Л. Н. и С. М. Толстая.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вещей: веник (метла) в славянских обрядах и верованиях.” //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Москва: РАН, 1993.

Reyfan, Irina. "Prose Fiction." In Andrew Kah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shki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Shalin, D. N. (ed). Russian Culture at Crossroad: Paradoxes of Postcommunist Consciousness.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학술지논문]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 호 (년도).

김우승. "러시아 정교의 상징성과 문화적 실재." 『슬라브연구』. 제 13권 (1997).

Денисова, И. М. "Этнос и культура. Зооморфная модель мира и её отголоски в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бзоры. no 3 (2003).

Sullivan, John. "Dukhovnye stikhi among Twentieth-Century Old Believers: Song-books of the Kilin Family."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5, No. 3 (July, 1997).

[그 외 문헌]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중앙일보』. 2016년 1월 17일.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421605> (검색일: 2016.01.17.).

"Российская неделя искусств откроется в субботу в ЦДХ."

<http://ria.ru/culture/20160116/1360389606.html> (검색일: 2016.01.17.).

Stephen Kotkin, "The Resistible Rise of Vladimir Putin."

<https://www.foreignaffairs.com/reviews/resistible-rise-vladimir-putin3> (검색일: 2016.01.17.).

6.1. 논문 저자 표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8.7월)에 따라 저자는 반드시 이름, 소속, 직위를 밝혀야 한다. 논문의 첫 페이지 오른쪽 상단 부분에 저자의 이름, 소속, 직위를 명시하거나, 별표(*)를 달아 각주양식으로 처리한다. 각주 내에서는 이름, 소속, 직위 등 자세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초중고교 소속의 학생은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명시해야 한다.

7. 제출형식

‘아래아 한글’로만 작성하여 제출함. 편집양식을 이행하지 않은 투고논문은 반려함. 국문초록은 700자 이내로 작성.

8. 제출마감일: 매년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

※ 저작권 소유 및 활용: 『노어노문학』에 투고한 저자(일동)는 투고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노어노문학회에 양도하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됩니다. 저작권 양도는 저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논문제출시 연회비(5만원)와 심사비(3만원)를 학회계좌에 입금하고, 논문통과 후 논문 게재료를 학회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110-235-173062 (예금주: 차지원)

※ 심사비, 게재료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2-660-958316 (예금주: 차지원)

※ 연회비, 심사료, 게재료는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시고, 송금인과 입금내역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금인(연회비), 송금인(심사료), 송금인(게재료)]

나. 논문심사규정

1. 심사위원회 구성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편집위원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임원진의 임기와 같되 연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편집이사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국내외 전문학자를 비상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심사원칙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도록 한다. 심사결과는 논문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되, 해당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판정

3.1. '게재 가'

-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 판정
-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 판정

3.2. '수정 게재'

- ①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수정 게재' 판정
- ② 필요시 수정 후 재심을 통과한 후 게재

3.3. '게재 불가'

-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불가' 판정
-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
- ③ 논문제출자가 심사위원회의 수정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비납부 현황

▶ 평생회비 납부자

고 일, 곽태석, 강덕수, 강명수, 강홍주, 권철근, 기연수, 김경태, 김군선, 김근식, 김기열, 김문황, 김민아, 김상현A, 김선진, 김선명, 김성완, 김성일, 김세일, 김신호, 김원한, 김유진, 김재환, 김정아, 김정일, 김준석, 김진규, 김 혁, 김현택, 김홍중, 문석우, 문성원, 문준일, 박미령, 박선영, 박춘은, 박태성, 박혜경, 배대화, 백준현, 서상국, 석영중, 송정수, 송헌배, 신혜조, 심용보, 안병용, 안병팔, 안상훈, 안 혁, 양영란, 양창렬, 오종우, 유승만, 유학수, 윤경숙, 윤우섭, 이기주, 이길주, 이덕형, 이명자, 이상룡, 이수경, 이영범, 이용권, 이은순, 이종진, 이진아, 이진희, 이형구, 이희숙, 이희원, 장 실, 장혜진, 정막래, 정보라, 정세진, 정연호, 조성연, 조혜경, 차지원, 채혜연, 최건영, 최종규, 최영미, 최윤락, 최인선, 최진석, 최행규, 추석훈, 표상용, 한만춘, 한예경, 한 용, 한지형, 함영준, 홍기순, 홍대화, 홍상우, 홍정현, 황성우

분납: 강수경(30만원), 김태옥(20만원), 박영은(20만원), 윤새라(35만원), 천호강(25만원)

▶ 2020년 연회비(5만원) 납부자

강수경, 권경준, 김나영, 김연경, 윤현숙, 손현주, 심지은, 이수현, 이승억, 이훈석, 정연우, 장디아나, 정인선, 정지윤, 정하경, 최윤희, 한현희, 디아나 카파루시키나, 류드밀라 가옥

▶ 2021년 연회비(5만원) 납부자

김영숙, 노희승, 이승억, 홍서연, 류드밀라 가옥

※ 회비 납부 현황에 착오가 있을 경우, 총무국(karll21@hanmail.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